

광주시, '태양광 발전 지자체 리그'서 산업부장관상

10만명당 1만5170kW, 특·광역시 중 태양광 보급률 1위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 선언, 시민햇빛발전소 호평

광주시는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발전 보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2개 광역지자체와 5개 기초지자체, 6개 민간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1999년 전국 최초로 조선대 기숙사에 태양광을 보급한 이래 지난해까지 태양광을 적극 보급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1만5170kW, 면적 1㎢당 445kW를 도입하는 등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도 달성했다.

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전국 최초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시민 주도 민간 협업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를 가

동한 사례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광주 비전을 선언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위 발족,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등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그린에너지 ESS 규제자유 특구사업과 미래형 스마트그



시민 주도 민간 협업 제1호 광주 시민햇빛발전소. (사진=광주시 제공)

리드 실증 등 인공지능 전력거리를 연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기반도 적극

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김영록 지사 임업 현장 찾아 정원산업 구상

최근 숲·임산물·정원 융복합단지 순천 '치유정원 모이리'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순천 청소리에 위치한 '치유정원 모이리'를 찾아 숲과 임산물, 정원이 융복합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전남 관광브랜드로 숲과 정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치유정원 모이리'는 양재순 대표가 지난 2014년부터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복합산림경영단지로 조성을 시작했으며, 황철김치 등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정원 요소를 더해 산림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답디 편백나무와 정원이 어우러져 있으며, 공간마다 조성된 정원 시설물과 꽃들이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인 임업인 교육장으로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재활 프로그램 등을 포스코 케미컬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숲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3차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숲으로 사람을 불러들여 소득을 얻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숲과 정원을 전남 관광브랜드로 키워 임업인 소득모델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전남 미래산림을 짚어준 예비 임업후계자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남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체험하도록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도록 남악신도시에서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열어 많은 도민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세방리튬배터리(주), 광주에 1200억대 공장 준공

광주시, 올해 첫 투자 협약 후 착공 6개월 만에 건립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2차 산업단지에서 열린 세방리튬배터리(주)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준공식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연속전지 분야 국내 선두 주자인 세방전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세방리튬배터리(주)가 광주에 1200억대 공장을 건립했다.

광주시와 올해 첫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세방리튬배터리(주)는 13일 오후 광주 평동2차 산업단지 현장에서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완공식에는 이용섭 시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차주호 세방리튬배터리(주) 대표이사,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세방리튬배터리(주)는 연속전지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인 세방전지(주)의 자회

사로 자동차 빌트인 카메라 보조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제작 분야에 신기술을 갖춘 기업이며, 지난 1월 광주시와 1200억원을 투자해 평동2차 2만9000㎡ 부지에 연면적 3만3000㎡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공장은 1월에 착공, 6개월 만인 지난 6월 말에 건립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연간 42만 대의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게 된다. 공장이 본격가동되면 일자리 250개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립한 공장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의 셀을 모듈화하고 배

킹하는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축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조립공장으로 운영된다.

세방리튬배터리(주)는 이번에 신설하는 광주공장을 수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전기 상용차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 중이며 유럽권 완성차 생산공장에 납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수 차례 세방리튬배터리(주)와 접촉하며 토지매입, 공장 착공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투자유치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착공 이후, 공장 건립·운영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법령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시는 공장이 들어서는 평동2차산업단지 인접한 빛그린산단의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가 준공되고,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글로벌모터스(GGM)도 향후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친환경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세방리튬배터리가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대명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메이든 광주의 배터리가 최고 명품 배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노인체육 활성화로 고령화시대 대비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 지역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시설의 설치·유지 등 노인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홍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건강수명 격차와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 절감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체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2005년 17.1%, 2010년 19.7%, 2015년 20.6%, 2020년 23.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32.2%(55만2천명), 2040년 42.0%(70만1천명), 2047년 45.4%(7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오는 2047년이면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차지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4일 제3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무원 1577-0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